특급! 시베리아횡단열차 4일
러시아 연해주를 찾아서!
3월 28일 출발
마중여행사 문의:02-730-2270

'왕이 된 남자' 굿 피날레 이끈 두 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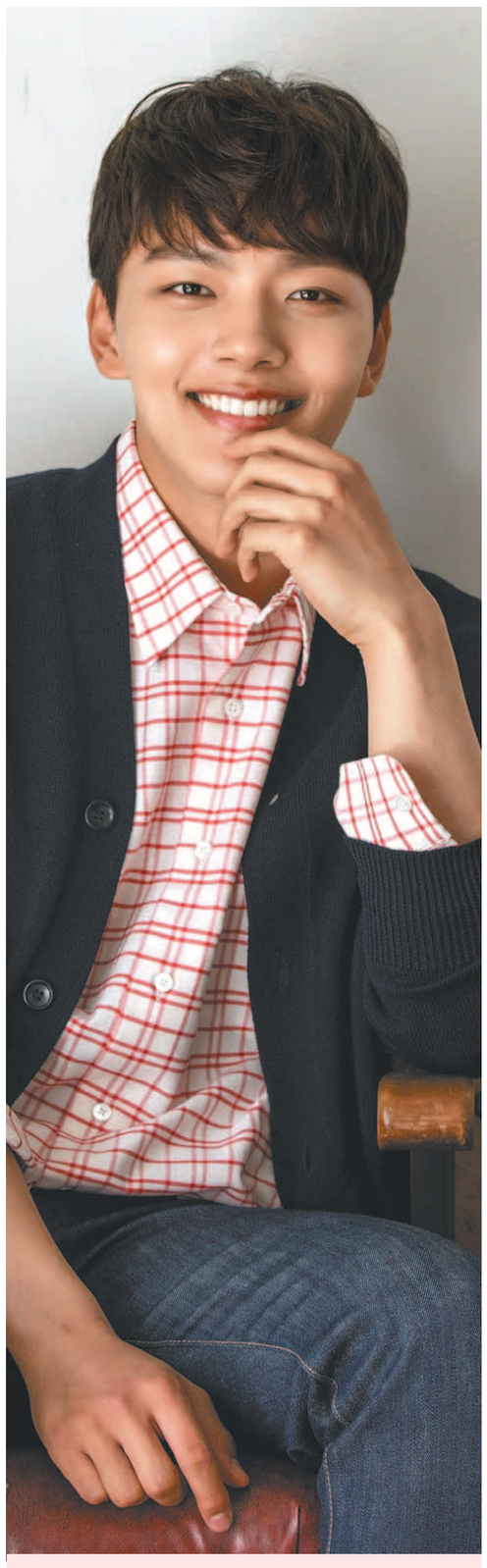
여진구 & 이세영

두 청춘 연기자의 활약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진다.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연기 활동을 벌이며 쌓아온 실력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대중은 새삼 놀라워했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그 성장을 함께 지켜본 뿌듯함이지 않을까. 4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왕이 된 남자'를 이끈 여진구(23)와 이세영(27)이 그 주인공이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배움으로 메우며 성장했다"는 두 사람을 6일과 7일 각각 서울 강남구 신사동과 역삼동에서 만났다.

"진정한 연기자 돼가는 느낌"

왕과 광대 1인2역 완벽히 소화한 여진구

직접 의견 내며 처음으로 연기에 확신 가져
이세영과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연기했어요



여진구는 "처음으로 연기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돌이켰다. '왕이 된 남자'를 통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며 연기하는 즐거움을 비로소 느꼈다는 말이다.

"이전까지는 주로 연출자의 의견에 따라 연기했다. 그렇다보니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스스로 확신이 없어 회피했던 것 같다. 이번에는 김희원 PD님이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물었다. 목소리를 냄으로써 져야 하는 책임감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어느새 자발적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있더라. 신뢰를 받으며 연기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

이러한 변화는 여진구가 현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했다. 김상경, 권해효 등 선배들의 연륜 깊은 시선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주저했지만, 촬영만 시작하면 극중 "서로 잡아먹는" 관계에 따라 눈빛에서부터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선배들의 장점을 모두 흡수한 기분"이라며 웃었다. "질문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답해주셔서 저의 부족함이 선배들 덕분에 채워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상대역 이세영과는 멋진 로맨스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현실 속 사랑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한다. "연기에 대한 갈증이 더 크다"는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어서 연기를 하지 않아야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세영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연기했다"고 '자랑'한다.

극중 여진구는 왕과 광대의 1인2역을 소화했다. 분노에 짓눌려 퇴폐적이기까지 한 왕과, 밝고 맑은 기운을 지닌 광대를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극단적인 성격과 분위기를 지닌 두 인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각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재능을 과시했다.

그는 "연기자라면 어두움과 사연을 지닌 인물을 한번쯤 맡아 보고 싶지 않나"라며 "막연히 바라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만날지 몰랐다"고 했다. 혹여 자신의 어린 나이가 캐릭터의 매력을 해치지 않을까, 시청자의 반감을 자아내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우려는 상상에 그쳤다. 그는 "카메라 앵글, 조명, 소품, 의상의 힘"이라며 제작진에게 공을 돌렸다.

"'왕이 된 남자'를 만나기 직전까지 막막하고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흔들렸다. 타이밍이 좋았다. 이번 성과가 앞으로 연기하는 데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 잘해서가 아니라 방법을 알게 된 덕분이다. 이전보다 만족의 기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뛰어넘기 위해 한계에 계속 부딪치겠다."

여진구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처럼 현재 연기의 맛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며 "이제야 진정한 연기자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채찍질하겠다"고 각오를 다시 세웠다. 군 복무는 염두에 둬야 할 과정. 그는 "워낙 건강하게 태어나 군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 편하다"며 "그 전에 배낭 메고 세계일주를 하는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여진구
▲1997년 8월13일생 ▲2005년 영화 '새드 무비' 데뷔 ▲2016년 중앙대 연극영화학 입학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 ▲2013년 영화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

"실제로도 사랑앞에선 직진"

왕을 도운 지혜로운 젊은 중전 이세영

살아있는 수업…연기자의 마음 성장한 시간
나쁜 남자 싫지만 왕처럼 건강한 퇴폐미 OK

이세영은 '왕이 된 남자'에 참여한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수업을 받는 것 같았다"며 "동료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일을 멋지게 잘하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럴수록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제가 이들을 믿는 것처럼, 그들도 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싶다. 연기자로서 마음가짐이 성장한 시간이다."

이세영은 극중 중전 역할을 맡아 부드러운 위엄을 보여주며 단아한 여성미로도 주목받았다. 기품이 느껴지는 한복과 다양한 장신구로 자신의 미모를 돋보이게 한 그는 "지금까지 입어본 옷 중 가장 예쁘고 비싼 의상이었다"며 "원 없이 입어 호강했다"며 미소 짓는다.

이세영은 왕과 광대의 1인2역을 맡은 여진구와 호흡을 맞출 수 있어 더 행복했다. 그와 부부 연기를 해야 해 휴대폰 배경화면을 여진구의 사진으로 설정해 놓았다. "상대역의 얼굴을 보면서 빨리 사랑하는 감정을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다. 촬영에 돌입하 뒤 여진구가 내뱉은 '얼굴에 어여쁨이 묻었소' 등 대사에 홀려 마치 연애하는 기분을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했다.

이세영이 연기한 중전은 먼저 다가가 입맞춤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저와 성향이 비슷해 고민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면서 연기했다"며 "실제로도 사랑의 감정을 인지하면 '직진'한다"고 했다.

"이상형으로 '나쁜 남자'는 싫은데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는 좋다. 하하! 극중 광대처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갖추면서도, 가끔 왕처럼 퇴폐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이면 좋겠다."

이제 이세영은 '왕이 된 남자' 속 두 남자와 이별해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출발선에 선 그는 늘 그래왔듯 정체되거나 도태되지 않기 위해 매일 소속사로 "출근해" 각종 시나리오와 연기 관련 논문을 읽으며 다음을 준비한다.

"촬영장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을 쏟아 집에서는 한없이 늘어지고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가능한 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회사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다. 웃는 것만으로도 엔돌핀이 돌지 않나."

이참에 운동도 다시 시작할 예정인 그는 "똑같이 밤을 새워도 여진구가 저보다 체력이 좋아 보이더라"며 "점점 체력 회복이 더뎌지는 것 같고 상처 나 멍이 생겨도 빨리 낫지 않는다"며 세월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다.

"가장 좋은 힐링은 집에서 캔맥주를 마시면서 함께 사는 고양이 쓰다듬으며 영화나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거다. 연기하는 것만큼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백솔미 기자

이세영
▲1992년 12월20일생 ▲1997년 MBC '뽀뽀뽀'로 데뷔 ▲2015년 성신여대 미디어영상연기학과 졸업 ▲드라마 '형제의 강' '내 사랑 팥쥐' '위풍당당 그녀' '대장금' '최고의 한방' '화유기' 등 ▲ 2004년 영화 '아홉살 인생' 대한민국영화대상 신인여우상 ▲영화 '여선생 VS 여제자' '피 끓는 청춘' 등 ▲2017년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KBS 연기대상 신인상·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신인연기상 ▲ 2018년 tvN '주말사용설명서'

연예뉴스 HOT 5

'항거:유관순…' 100만 관객 돌파

'항거:유관순…'

유관순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가 10일 전국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넘어섰다.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화는 이날 오전 9시30분 누적 100만3696명을 기록했다. '항거:유관순 이야기'는 1919년 만세운동에 참여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영턱스클럽 리더 출신 최승민 결혼

최승민

1990년대 인기그룹 영턱스클럽의 리더 최승민이 결혼했다. 10일 웨딩업체 해피메리드컴퍼니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10살 연하의 신부 최 모 씨와 결혼한 최승민의 모습을 공개했다. 최승민은 1996년 영턱스클럽으로 데뷔해 '정' '못난이 콤플렉스' 등 노래로 인기를 모았다.

걸그룹 브랜드 평판 블랙핑크 1위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3월 걸그룹 브랜드평판 1위에 올랐다. 2위는 신인그룹 ITZY(있지), 3위는 트와이스였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올해 2월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빅데이터 1억1082만여 건을 분석해 걸그룹에 대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브랜드평판 지수를 측정한 뒤 10일 순위를 발표했다.

윤균상 "반려묘 키우려면 희생 필요"

윤균상

연기자 윤균상이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고양이 네 마리와 함께 사는 모습을 보인 뒤 고양이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주의를 당부했다. 윤균상은 SNS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굉장히 큰 결심과 희생이 필요하다"며 "방송을 보고 고양이 분양을 생각했다면 순간적인 충동을 접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안현모-라이머 "안창호를 기억하자"

라이머·안현모

방송인 안현모와 음악프로듀서 라이머 부부가 10일 안창호 서거일을 맞아 관심을 촉구했다. 부부는 이날 SNS에 도산 안창호 선생 관련 카드뉴스를 올리고 "힘을 모아 독립운동가 안창호를 알리고 기억하자"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 실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